



# 한·미 FTA 제6차 농업분야 협상 결과

농림부

지난 1월 15일~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·미 FTA 제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.

농업분야 협상은 1월 16일~18일 3일간 개최되었으며, 농림부에서는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등 25명이 참석했다. 제7차 협상은 오는 2월 11일~14일 4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

## 1. 농업 분야 주요 결과

- 농업분과는 이번 협상에서 미합의 농산물의 양허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는데,
  -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태이며,
  -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 중 의견이 접근된 품목도 있다.
- 이번 6차 협상에서는 특히 미정(Undefined)으로 분류된 민감품목의 양허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,
  - 우리측은 품목별 민감도와 시장특성에 따라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쿼터(TRQ), 관세감축 유예, 부분감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,
  - 미국은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지만, 여전히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.

-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간 입장차가 큼을 확인했다.
  - 따라서 제도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## 2. 향후 전망

- 농업 분야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민감품목에 대해 양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 바,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양국간 집중적인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- 농림부는 이번 6차 협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계 전문가 및 품목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대안을 계속 검토할 계획인 바,
  - 이 과정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, 수입쿼터, 계절관세, 일정기간 관세감축 유예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 